

'국제 LED 엑스포 2010' 현장스케치 전세계 LED 제품이 한 자리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국제 LED 엑스포 2010'이 지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다. LED 산업에 대한 국내외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과 빠르게 성장해가는 LED산업의 발전 양상을 한눈에 볼 수 있었던 '국제 LED 엑스포 2010'. 이번 엑스포에는 국내외 LED 관련 기업 270여 개 업체가 참가, 600여 개 부스에서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새로운 빛으로 수놓아진 엑스포의 뜨거운 현장과 엑스포에 참가한 ESCO기업들의 제품을 살펴보았다. 정리 편집부 사진 최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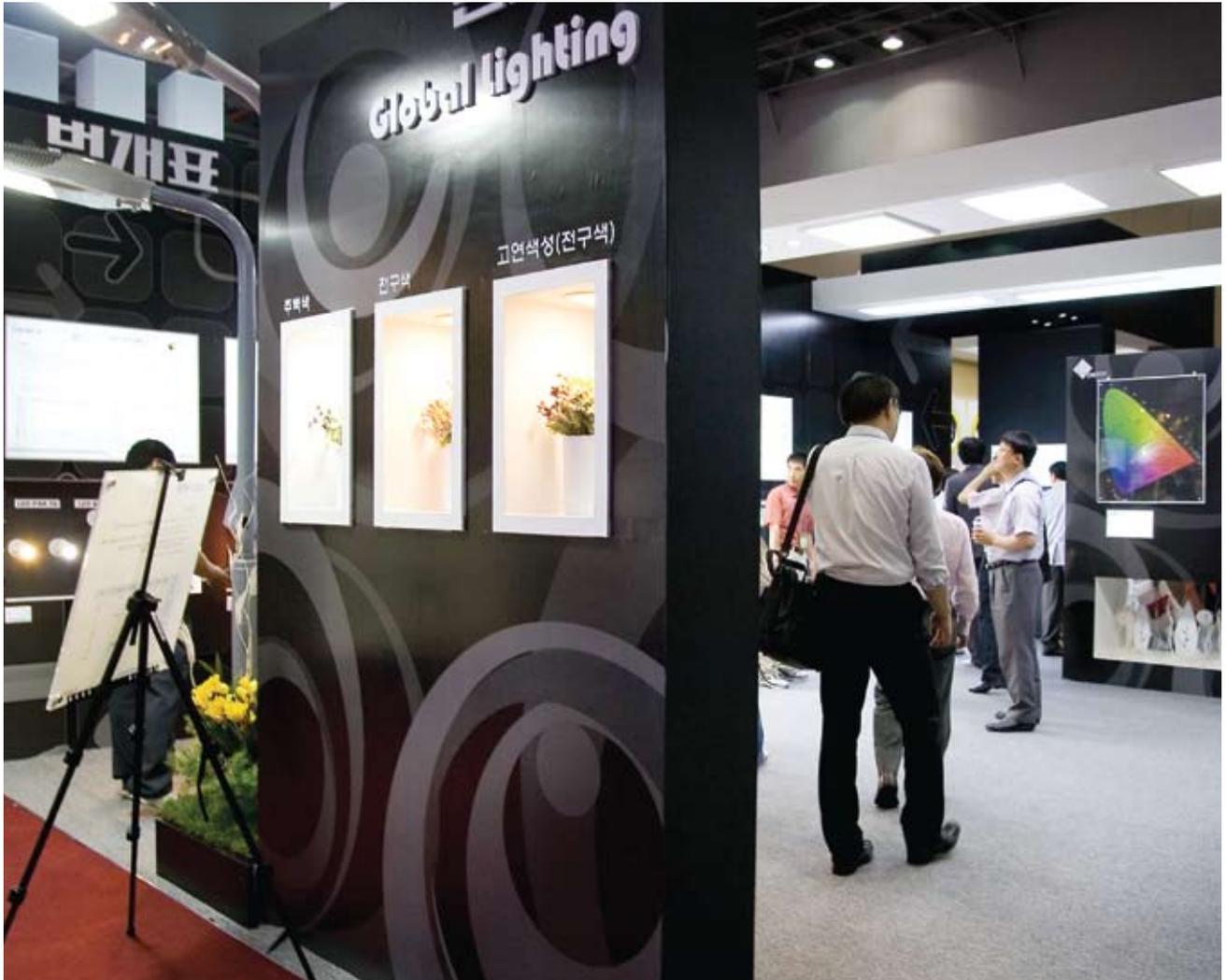
'국제 LED 엑스포 2010'이 지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다. LED와 OLED등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이 총출동하는 LED 엑스포는 국내 최대 규모 LED 전시회로서 270여 개 업체가 참가, 600여 개 부스에서 LED, 칩, 조명, 장비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이번 엑스포에는 LS산전, 금호전기, 파인테크닉스, 태원전기산업 등 국내 주요 LED 업체뿐 아니라 대만 에버라이트, 일본 니온가터, 산유 등 LED 기술 경쟁력을 갖춘 국내외 기업들이 대거 참가했다.

전시기간 중엔 26개국 120개사 해외 바이어가 초청돼 수출 상담회가 열리기도 했으며, 개최 전부터 업계 관계자들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2억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친환경 조명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려 LED 관련 기술과 제품의 최신 동향을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이밖에 LED 관련 제품 사진을 전시하는 디자인사진전, 생활 곳곳에서 LED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 LED 생활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지식경제부 정만기 국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LCD BLU용 LED 양산에 성공해 전세계 LED 수요를 견인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술 변화속도가 빠른 LED 산업에서 기업간, 기업-정부-학계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발 빠르게 적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엑스포에는 국내외 관람객 약 2만5천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LED 형광등 '어스퀘어'를 선보인 금호전기(주)

'번개표' 브랜드로 유명한 금호전기(주)는 전시장 입구에 부스를 마련해 관람객들이 쉽게 금호전기의 LED 조명 제품을 접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금호전기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LED 형광등을 필두로 별브타입 램프, 전구식 램프, 가로등, 표시등, 다운라이트 등 20여 종의 LED 조명 제품을 선보였다. LED 형광등 '어스퀘어'는 기존 등기구나 안정기를 변경하지 않고 램프만 교체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기존 형광램프 대비 전기료를 30% 정도 절감할 수 있고 빈번한 점멸에 따른 성능 저하가 없어 수명이 5만 시간을 넘는 효과적인 제품이다.





통합제어시스템인 핀스(PINS)를 선보인 LS산전(주)

LS산전(주)은 LED 조명 시스템을 선보여 관람객과 바이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LS산전(주)이 이번 엑스포를 통해 선보인 시스템은 지난해 출시한 전력선 통신 기반의 통합제어시스템인 핀스(PINS)다. 핀스는 사용자가 각자 생활리듬에 따라 조명을 자동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오후 3~4시 자리를 자주 비우는 사람이라면 그 시간에 조명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프로그래밍함으로써 전력 낭비를 막는 방식이다. LED 조명만 있어도 에너지를 줄일 수 있지만 핀스를 사용하면 생활리듬을 프로그래밍해 불필요한 전력의 20~30%를 아낄 수 있다.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KS 인증 제품을 선보인 ㈜파인테크닉스

파인테크닉스(주)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을, 기술표준원에서 한국사업규격(KS) 인증을 획득한 LED 조명 제품인 고천장등 2종(45W), 할로겐 대체형 2종(8W/20W), 백열등 대체형 4종(8W/12W/16W/22W) 등을 선보였다. 고천장등 45W 제품의 경우, 기존 공장이나 창고에서 활용하는 고천장등 메탈할라이드 100W급 제품의 대체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광효율 기술기준 와트당 60루멘(lm/W) 이상, 전력소모를 판단하는 비율인 역률이 95% 이상이다. 할로겐 대체형 LED램프는 전력소비가 8W와 20W로 기존 75W와 100W급 할로겐 램프를 대체하는 고효율 저전력 제품이다. 광효율, 조도 및 연색성이 뛰어나 실내 매장 등에서 보조 조명으로써 활용도가 높다. 기존 할로겐 램프 대비 80% 이상 소비전력을 절감할 수 있으며, 수명이 5만 시간으로 하루 12시간씩 10년간 교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백열등 대체형 제품은 소비전력이 8W~22W로 전력소모량이 낮고, 자연광에 근접한 조명으로 우수한 방열 구조로 디자인되었다. 별도의 시공 없이 기존의 사무실 및 상업용 건물에 설치돼 있는 삼파장 램프와 백열등도 대체할 수 있어 관련 시장에서의 활용도가 넓다.

